



한국IR협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9.09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메카로 (241770)

Control the Heat, Lead the Chip



2026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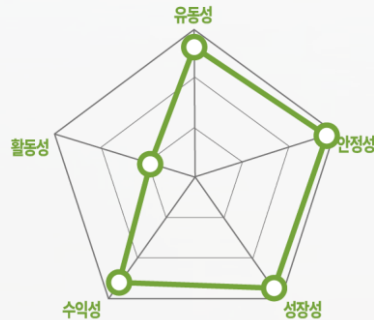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메카로는 2000년 10월 설립된 반도체 부품업체로, 2017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 히터블록에서 전구체 소재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소재사업을 버숨메트리얼즈코리아에 매각하며 부품사업 중심으로 재편. 2026년 상반기 히터블록 매출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7.7% 차지
- 중국향 매출액은 2023년 114억원에서 2024년 297억원, 2025년 527억원으로 증가. 2026년 상반기에도 25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0.3% 차지. 중국향 성장을 견인하는 MCA 히터는 일반 제품보다 생산 리드타임이 길고 ASP가 3배 이상 높은 고사양 제품. 중국 내 자체 양산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로컬 펌과 장비업체의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 2026년 7월 세라믹 히터의 고객사 품질 인증 완료 및 초도 PO 확보. 양산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공급 물량 확대 전망. 같은 달 삼일테크 지분 100%를 인수하며 후공정 장비사업에 진출했으며, 램다마이크로의 VFM 기술과 연계한 열처리 장비사업도 추진. 2026년 매출액 1,086억원 (+14.8% YoY), 영업이익 162억원(+5.7% YoY) 추정. 26E P/E 31.9배로 성장 기대가 반영된 만큼 세라믹 히터의 반복 발주 여부 확인 필요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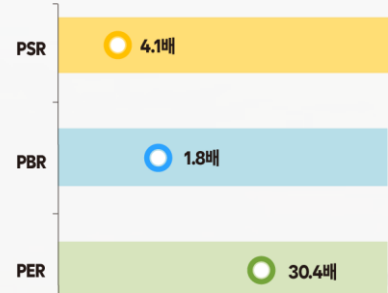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중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MCA 히터, 해외 매출 성장 견인

중국향 매출액은 2023년 114억원에서 2024년 297억원, 2025년 527억원으로 증가. 2026년 상반기에도 256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50.3% 차지. 중국향 성장을 견인하는 제품은 SUS 소재의 고사양 MCA 히터로, 일반 제품보다 생산 리드타임이 길고 ASP는 3배 이상 높은 구조. 중국 내 자체 양산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현지 장비업체와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확대, 신규 장비사향 공급 추가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과 현지 수요 변동성에 대한 확인 필요.

고객사 인증과 초도 PO 확보, 세라믹 히터 공급 개시

2026년 7월 국내 메모리 고객사와 공동개발한 AIN 세라믹 히터의 품질 인증 완료. 당초 5년으로 예상했던 인증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했으며, 기존 공급업체에 이은 추가 벤더로 진입. 초도 PO 발행도 확인돼 2026년 공급 개시 예상. 양산라인에서 수율과 수명이 검증되면 2027년부터 적용 장비와 공급 물량 확대 전망. 기존 메탈 히터를 대체하기보다 대응 가능한 장비와 온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삼일테크 램다마이크로를 통한 후공정 장비사업 확장

2026년 7월 삼일테크 지분 100%를 356억원에 인수, 8월부터 연결실적 반영. 삼일테크는 후공정용 트림,포밍, 레이저 마킹 및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제작 역량 보유. 램다마이크로는 상반기까지 누적 121억원을 투자했으며, 추가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41억원 규모. 램다마이크로의 VFM 핵심기술·장비 설계와 삼일테크의 정밀장비 제작·자동화 역량을 결합해 후공정·열처리·에너지 장비로 사업영역 확대 추진. VFM 장비의 양산 적용 여부가 향후 시너지 현실화의 핵심.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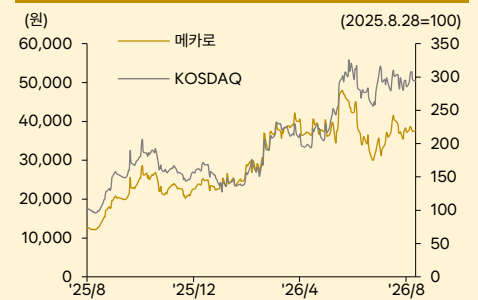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540	386	629	946	1,086
YoY(%)	101	-28.5	62.9	50.5	14.8
영업이익(억원)	26	-76	41	154	162
OP 마진(%)	4.7	-19.8	6.6	16.2	14.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37	-24	55	126	120
EPS(원)	4,287	-231	541	1,238	1,182
YoY(%)	445.8	적전	흑전	128.7	-4.5
PER(배)	2.5	N/A	15.4	18.6	31.9
PSR(배)	2.0	2.4	1.4	2.5	3.5
EV/EBITDA(배)	N/A	629.7	2.0	7.0	13.3
PBR(배)	0.6	0.5	0.4	1.1	1.8
ROE(%)	25.7	-1.2	2.9	6.4	5.8
배당수익률(%)	4.2	0.0	1.8	1.5	0.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7)	37,650원
52주 최고가	47,950원
52주 최저가	12,160원
KOSDAQ (9/7)	822.19p
자본금	51억원
시가총액	3,838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9억원
외국인지분율	2.72%
주요주주	이재정 외 24인 51.8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6	26.1	209.6
상대주가	1.6	77.1	205.6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코스닥 라이징스타'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하고 있는 기업



기업 개요

기업개요 및 연혁

메카로는 반도체 증착장비에 필요한 메탈&세라믹 히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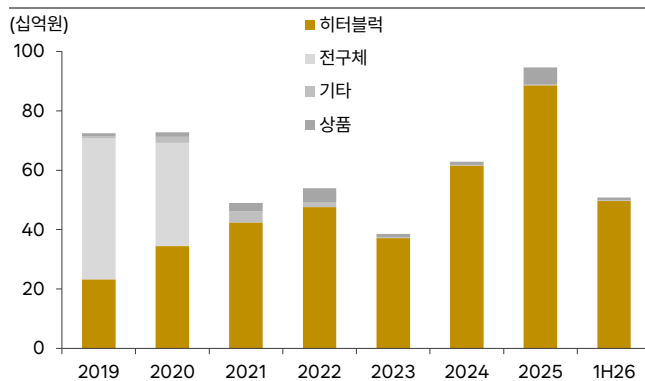
메카로는 반도체 증착(CVD-ALD) 장비의 챔버 내부에서 웨이퍼를 흡착하고 열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히터블럭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이다. 2000년 10월 주식회사 메카로닉스로 설립됐으며, 설립 직후인 2000년 12월 하이닉스반도체, 2006년 12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며 국내 양대 메모리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2014년 12월 주식회사 메카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현재의 사업 구조는 두 차례의 사업 개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메카로는 히터블럭 등 반도체 부품에서 시작해 반도체 전구체(소재)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9년에는 매출액 725억원 가운데 전구체가 475억원(65.5%)으로 히터블럭 233억원(32.1%)을 앞섰다. 그러나 2022년 11월 소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엠케미칼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지분 100%를 벅숨머트리얼즈코리아에 양도하면서 다시금 부품 단일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2023년 이후의 실적 회복은 중국이 주도했다. 지역별 매출에서 중국은 2023년 114억원(비중 29.6%)에서 2024년 297억원(47.2%), 2025년 527억원(55.7%)으로 2년 만에 4.6배 늘었다. 동기간 국내 매출은 2023년 235억원에서 2025년 354억원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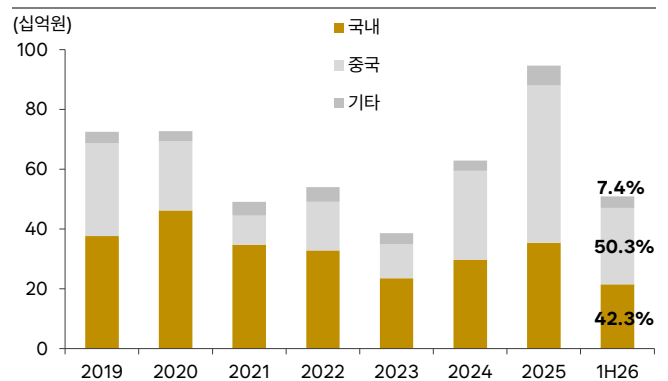
2025년 연결 매출액은 946억원(YoY +50.5%), 영업이익 154억원(YoY +273.0%, 영업이익률 16.2%)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히터블럭 886억원(YoY +43.9%)와 상품 58억원(YoY +460.5%)으로 구성된다. 2026년 상반기에도 매출액 509억원(YoY +14.6%), 영업이익 86억원(영업이익률 16.9%)으로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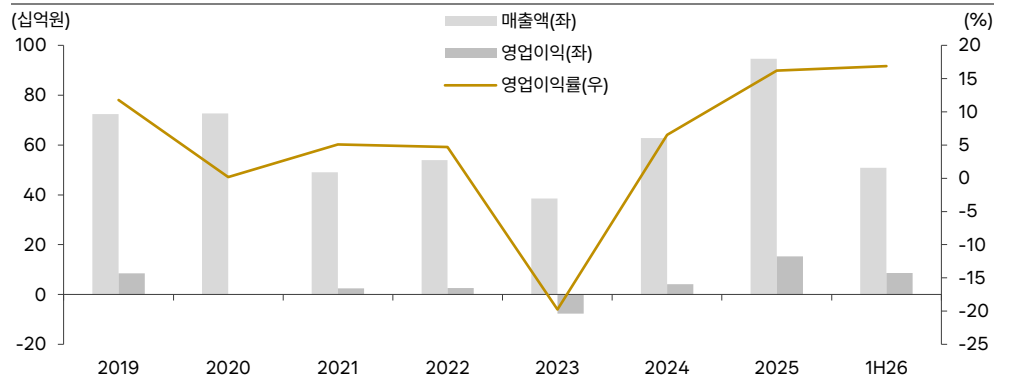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메카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연혁

2000~2009	2010~2019	2020~
2000.10 (주) 메카로닉스 법인 설립 2000.12 (주) 하이닉스반도체 업체등록 2001.05 본점 이전(인천→화성) 2004.12 특허기술 사업화 동상 수상(발명진흥회 주관) 2005.10 (주)솔믹스 계열회사 편입 2006.08 대표이사 변경 (정태성 → 이재정) 2006.12 삼성전자(주) 협력사 등록 2008.03 SK(주) 계열회사 편입 2009.05 본점 이전 (화성→평택) 2009.11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10.02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경기도지사) 2010.11 5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1.11 제41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기업부문 장관상 수상 (지식경제부) 2012.11 2012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국무총리 표창 2013.12 1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4.12 상호변경(주식회사 메카로닉스 → 메카로) 2017.12 코스닥시장 상장 2018.07 중국 합자법인 MS tech 설립 2018.10 벤처기업 1000억 클럽 가입 2019.11 주식회사 메카로에너지 신설법인 설립	2020.10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100 선정 2020.11 (주)케이브이티에스 인수 (사업: 밸브류) 2021.02 충북음성 성본산업단지 토지매입 2021.07 중국판매법인 MECARO CHINA 설립 2021.08 (주)케이브이티에스 합병(종속법인 주식회사 메카로) 2021.09 대표이사 변경(이재정 → 이재정, 박명순) 2021.11 성본산업단지 신규시설 투자 (118억) 2022.08 소재사업 매각결정 2022.11 22 탄소중립 녹색경영 대통령 표창 수상 2023.03 세라믹 히터 개발 2025.12 제17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ESG기업상 2026.07 삼일테크 인수 2026.08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자료: 메카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구성 및 자회사

안정적 지배력과 각자대표 체제

2026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이재정 대표로 보통주 27.8%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홍 4.9%, 이동건 4.8%, 최숙 4.6% 등 친인척과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1.8%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2025년 말 대비 지분율이 0.9%p 상승한 것은 일부 친인척의 지분 매도에도 박영순 대표와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 매수선택권 및 경영성과급 주식이 지급된 영향이다. 경영은 최대주주인 이재정 대표와 반도체 업계 전문경영인인 박영순 대표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6월 말 발행주식수는 1,019만2,640주이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0.8%다. 회사는 상반기 중 자기주식 17만5,199주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처분했다. 잔여 자기주식도 2027년 말까지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처분할 계획이어서, 소각에 따른 주당가치 상승보다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성장과 자회사 부담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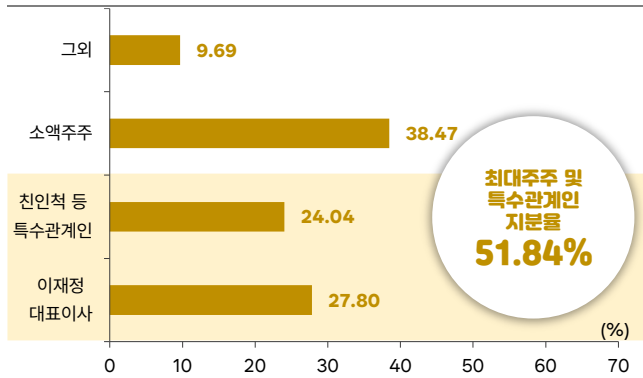
2026년 6월 말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메카로에너지와 MECARO CHINA 2개사다. 이후 2026년 7월 31일 삼일테크 지분 100% 인수를 완료하면서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3개사로 확대됐다. 다만 삼일테크는 반기 말 이후 취득한 회사로 2026년 상반기 연결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메카로에너지는 2019년 태양전지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CVD 방식의 CIGS 박막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한 탠덤 태양전지, 투명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6년 상반기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해 연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MECARO CHINA는 메카로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중국 내 히터블럭 판매와 현지 관계기업 Chip Core Technology(CCT) 관리를 담당한다. MECARO CHINA는 중국 합작법인 CCT의 지분 44.5%를 보유하고 있다. CCT는 메카로에게서 히터블럭 기술을 이전받아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354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메카로는 CCT의 실적에 따른 지분법이익과 함께 CCT가 생산·판매하는 계약 제품에 대해 2040년까지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이어서, 중국 사업 확대가 지분법이익과 기술로 수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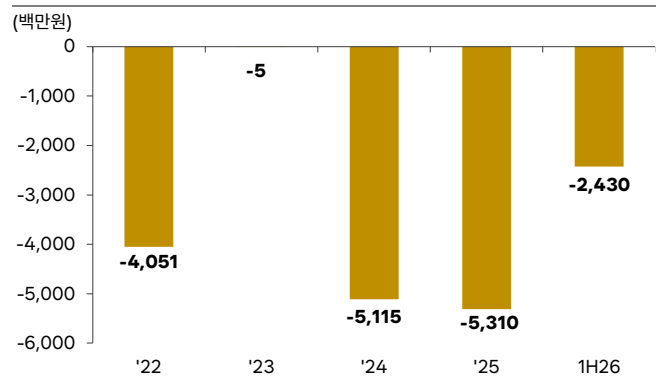
2026년 7월 인수한 삼일테크는 반도체 후공정용 트림·포밍 장비, 레이저 마킹 장비 및 공정 자동화 설비를 생산한다. 인수금액은 356억원이며 전액 자체자금으로 지급했다. 삼일테크는 2025년 매출액 96억원,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연결 외형 확대 효과는 있으나 수주 회복과 수익성 정상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6년 2분기말 기준 주주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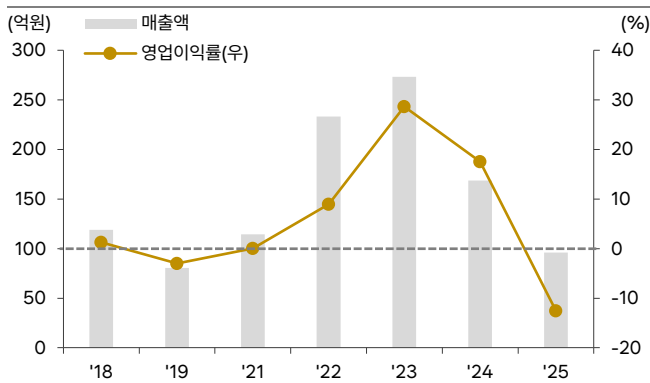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카로에너지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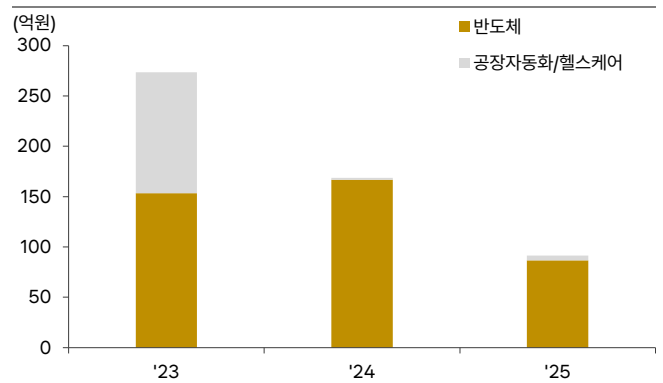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일테크 실적 추이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일테크 사업부문별 매출액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별 설명 및 주요 보유 기술

메탈 히터블럭 매출 비중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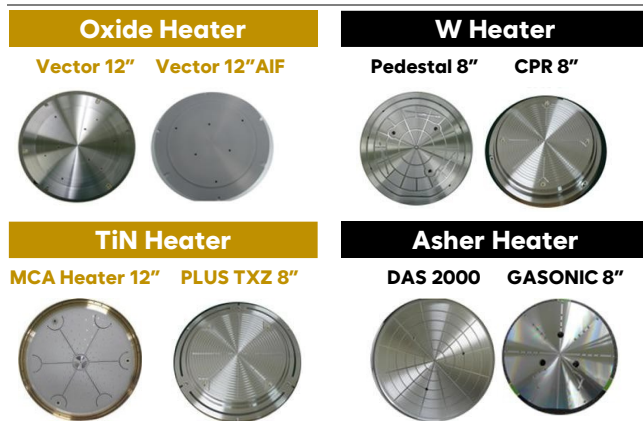
메카로는 메탈 히터블럭 매출 비중이 98%에 달한다. 히터블럭은 CVD·ALD 등 반도체 증착장비의 챔버 내부에서 웨이퍼를 고정하고 열을 균일하게 공급하는 부품이다. 온도 편차와 열변형, 표면 파티클이 반도체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밀한 열선 설계와 장기간의 품질 안정성이 요구된다. 고객사 공정 테스트와 양산 승인에도 약 1~3년이 소요돼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메카로는 국내에서 메탈 히터블럭을 선제적으로 국산화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향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 주요 경쟁력은 고객사별 공정조건에 맞춘 열분포·열응력 시뮬레이션과 AIF 표면코팅 기술이다. AIF 코팅은 알루미늄의 부식과 파티클 발생을 줄이고 열 방사율을 높여 표면 온도 균일도를 개선한다.

2026년 상반기 히터블럭 매출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7.7%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은 288억원으로 히터블럭 매출의 57.9%를 기록했다. 중국 현지 반도체 업체와 장비사를 중심으로 해외 고객 기반이 확대되면서 과거 국내 고객사 중심이던 매출구조가 수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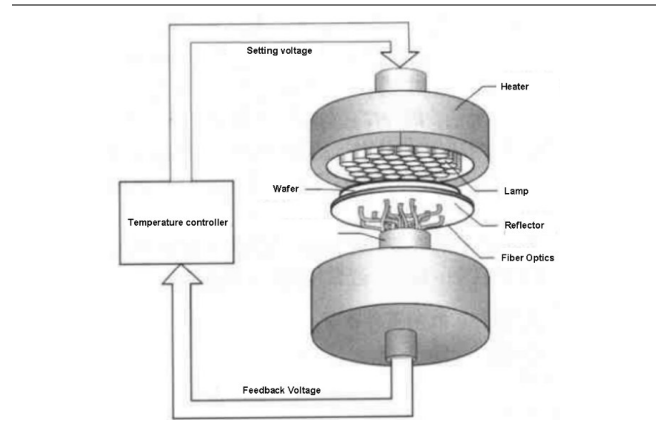
같은 기간 히터블럭 생산실적은 4,675개, 가동률은 88.4%로 2025년 77.5%에서 상승했다. 평균판매가격도 내수 700만원, 수출 1,650만원으로 2025년 각각 500만원, 1,292만원보다 높아졌다. 수출 물량 증가와 고사양 제품 비중 상승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히터블럭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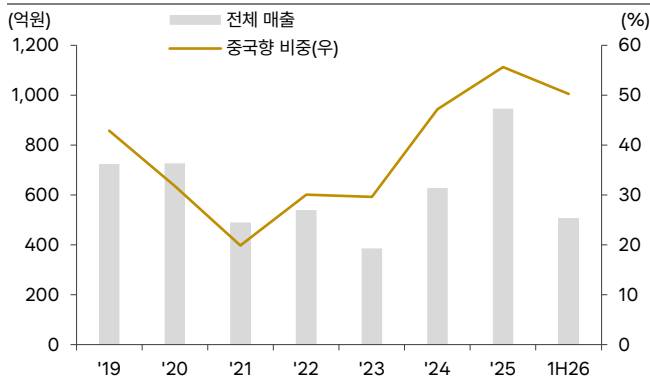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히터블럭은 챔버 내 열에너지를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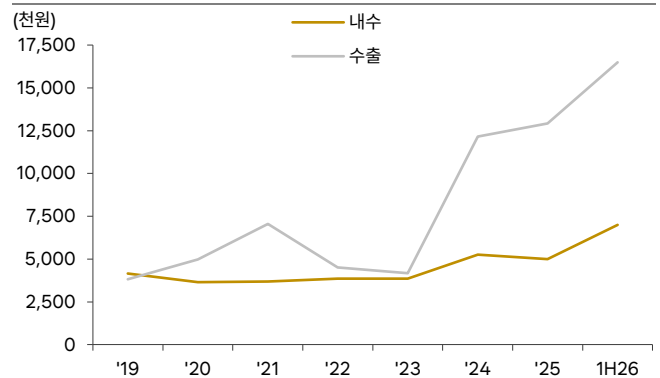
자료: Semicorex,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중국향 매출 비중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히터블럭 평균판매가격 추이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카로는 알루미늄 메탈 히터에서 질화알루미늄(AIN) 기반 세라믹 히터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했다. 메탈 히터가 주로 400℃ 이하 공정에 적용되는 반면, AIN 세라믹 히터는 500℃ 이상의 고온 CVD 공정에 사용된다. 메탈 대비 열전도율과 고온 안정성이 높아 반도체 미세화·고단화에 따른 고온공정 확대 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회사는 열선 패턴 설계와 밀도 조정 기술을 적용해 고객사와 공동개발을 진행했으며, 장기 가동평가를 거쳐 2026년 7월 품질인증을 완료하고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충북 음성 성본사업장이 세라믹 부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한다. 기존 메탈 히터에서 축적한 열해석·구조해석 및 고객 맞춤형 설계 경험을 세라믹 히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다만 품질인증 완료가 즉시 대규모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사가 히터를 변경하면 장비별 공정조건을 다시 최적화해야 하므로 초기 적용 이후 수율과 수명 검증을 거쳐 공급 장비와 공정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기여보다 양산 안정화와 고객사 내 적용 범위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

AIN 히터블럭 외에도 Pedestal 히터블럭, 카트리지 히터블럭 등이 있는데 각 히터블럭 유형은 특정 반도체 제조 공정의 요구 사항, 예를 들어 온도 분포의 균일성, 고온에 대한 내성, 그리고 열전달 방식 등을 기반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히터블럭들은 반도체 칩의 제조 과정에서 극도의 정밀성과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다.



산업 현황

AI 메모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투자

AI-HPC 수요로 글로벌 장비 시장
사상 최대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은 AI와 HPC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 국면에 재진입했다. 장비 매출은 메모리 업황 둔화로 2023년 1,063억달러(-1.3% YoY, 이하 YoY)로 감소했으나, 2024년 1,171억달러(+10.2%), 2025년 1,351억달러(+15.4%)로 반등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SEMI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액이 1,659억달러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2,295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 로직·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가 전 공정 장비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패키징·테스트 장비 수요도 동반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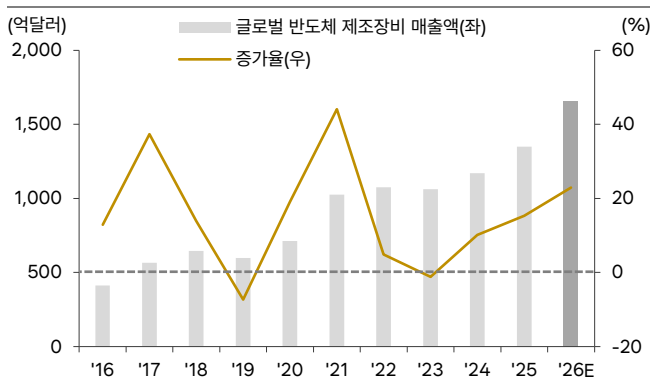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투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중국·대만·한국의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글로벌 시장의 79%를 차지해 2024년 74% 대비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은 메모리 선단공정 투자,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중심으로 높은 장비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HBM용 선단 DRAM
전공정 투자 확대

한국의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2023년 199억달러에서 2024년 205억달러(+3.0%), 2025년 258억달러(+25.9%)로 증가했다. 메모리 재구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AI 서버용 HBM 수요 확대에 대응한 DRAM 선단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이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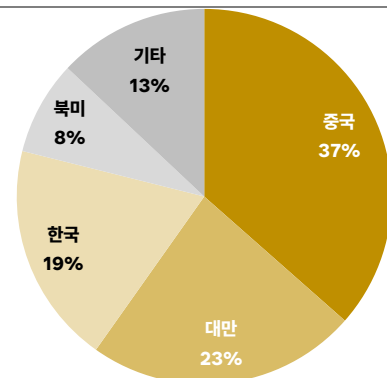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화와 적층 수 증가에 따라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고 공정 단계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증착·식각 장비 수요가 확대되고, 가동률 상승은 장비 내부 소모성 부품의 교체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장비에 히터블록을 공급하는 메카로 역시 수혜가 가능하다. 다만 HBM 투자 중 후공정·첨단 패키징 부문은 히터블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HBM 생산능력 확대 자체보다 DRAM 전공정 증설과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증착·식각 장비 투자 확대가 메카로 실적에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액 추이



자료: SEMI(2026.7),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지역별 반도체 장비 투자 비중



자료: SEMI(2026.4),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업황과 디커플링되는 중국 장비사 성장

중국 CAPEX 정체에도

로컬 장비사 고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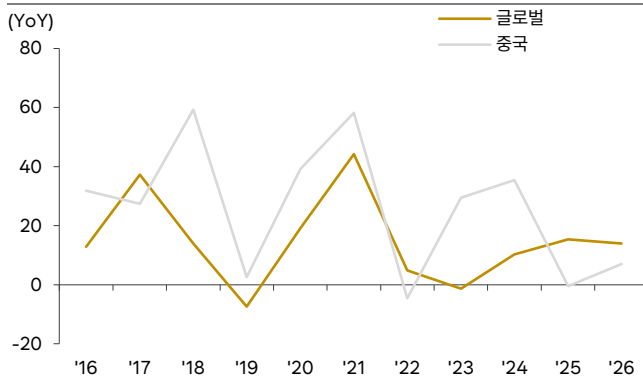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생산능력 확충과 장비 국산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2023년 366억달러에서 2024년 496억달러로 3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493억달러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장비 시장의 36%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시장의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의 투자는 첨단공정뿐 아니라 레거시 공정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국산 장비와 부품의 채택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NAURA, AMEC, KINGSEMI, ACM Shanghai, Piotech, Hwatsing 등 중국 주요 장비업체는 식각·증착·세정 등 전공정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로컬 장비사의 실적은 글로벌 반도체 투자 사이클과 차별화되고 있다. 중국 주요 장비 6개사의 합산 매출은 2018년 58억위안에서 2025년 716억위안으로 연평균 약 43%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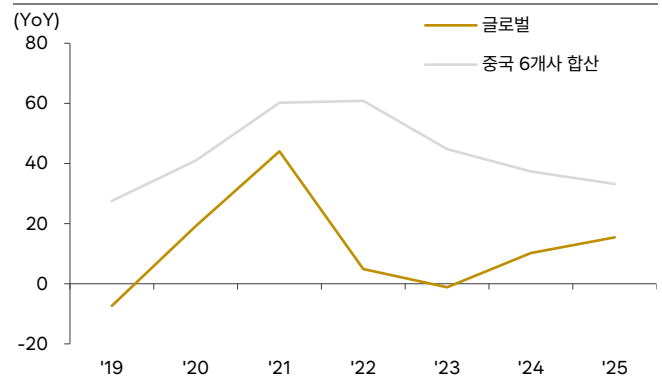
글로벌 장비 시장이 7.3% 역성장한 2019년과 1.3% 감소한 2023년에도 중국 6개사의 합산 매출은 각각 27.6%, 44.8% 증가했다. 2025년에도 중국 전체 장비 투자액은 0.5% 감소했지만, 이들 업체의 매출은 33.2% 성장했다. 이는 중국 장비사의 성장이 신규 Fab 투자뿐 아니라 기존 외산 장비의 국산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업황이 둔화되더라도 공급망 내재화가 지속되는 한 중국 로컬 장비사의 성장률은 글로벌 시장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액 증가율 디커플링



자료: SEM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은 1분기 기준

중국 주요 6개 장비사 매출액 증가율 추이



자료: SEMI(2026.4),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는 교체 수요, 중국은 신규 장비 탑재가 성장축

높은 진입장벽의 히터블록, 국내 After와 중국 Before가 핵심

히터블록은 반도체 장비의 챔버 안에서 웨이퍼를 흡착·가열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식각, 증착(CVD·ALD) 장비 등에 적용되며, 온도 균일도와 파티클 관리가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히터블록 시장은 신규 장비에 탑재되는 Before market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칩메이커에 교체품을 공급하는 Af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신규 Fab 증설 시 Before 수요가, 기존 Fab의 가동률이 상승할 때는 After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다.

히터블록은 실제 공정 평가와 장기간의 품질 검증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다. 회사에 따르면 평가부터 판매까지 약 1~3년이 소요되며,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비사와 칩메이커도 공급업체 변경에 보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메카로는 국내 메탈 히터블록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설치 장비 기반이 커 After 수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반면 중국은 로컬 장비사의 성장에 힘입어 신규 장비용 Before 수요가 중심이다. 메카로는 NAURA 등 중국 장비업체 향 공급을 확대했으며, 중국 매출은 2024년 296억원에서 2025년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중국 현지 업체와 칩메이커도 히터블록을 개발하고 있어 국산화는 중장기적인 경쟁 요인이다. 현지 업체가 품질 인증을 확보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긴 평가기간과 양산 레퍼런스가 요구돼 단기간 내 공급망이 급격히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투자포인트

1 중국에서 검증된 MCA, 중장기 일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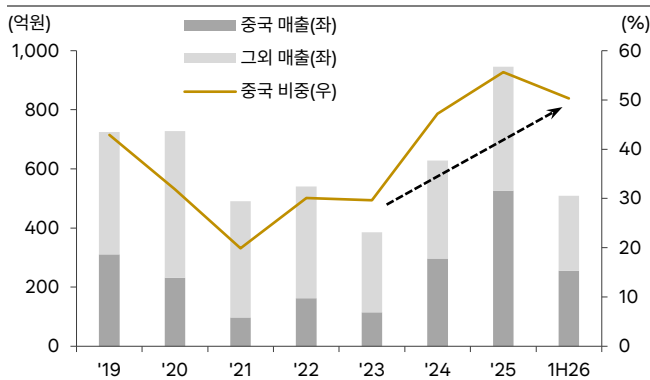
고부가 MCA로 해외시장 확대

중국향 매출은 메카로의 본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매출액은 2023년 114억원에서 2024년 297억원, 2025년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중국 매출은 약 256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50.3%를 차지하며 본업의 핵심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향 성장을 이끄는 제품은 스테인리스 소재의 MCA 히터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MCA 히터를 일부 공정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 장비사와 반도체 업체는 다양한 증착공정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향 매출 증가분의 80% 이상이 MCA 히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MCA 히터는 알루미늄 히터보다 정밀가공 난도가 높고 생산 리드타임도 일반 제품의 약 8주보다 긴 20주에 달한다. 반면 ASP는 기존 제품의 3배 이상이어서 판매량 증가와 제품 믹스 개선이 동시에 가능하다. 다만 2023년 이후 ASP 상승에는 소재가격 인상분의 반영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판가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원가 상승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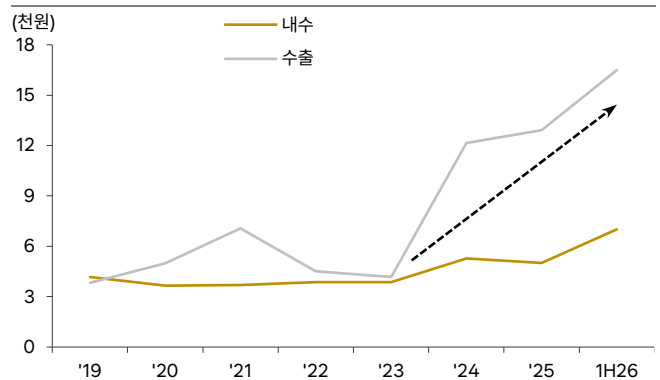
특히 중국이 MCA 히터를 아직 자체 양산하지 못한다는 점이 메카로의 경쟁력이다. 동시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업체들은 알루미늄 히터를 상당 수준까지 국산화했으나, MCA 히터에 필요한 SUS 정밀가공과 열변형 제어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중국 내 MCA 히터 양산업체가 없어 현지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내재화가 확대될수록 메카로의 MCA 히터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메카로 중국 매출액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SP 추이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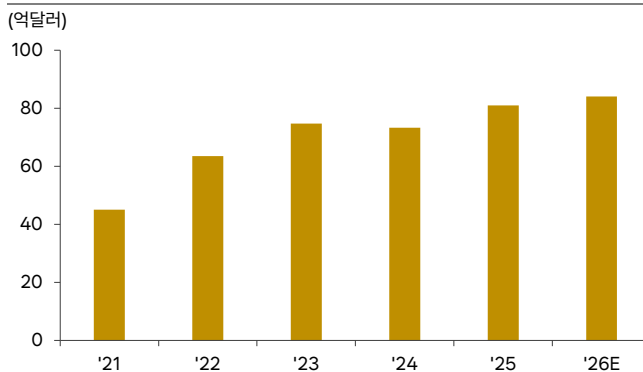
중국 로컬 펌과 장비업체의 성장도 수요를 뒷받침한다. SMIC의 1H26 설비투자는 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높은 가동률을 바탕으로 신규 생산라인의 가동을 앞당기고 있다. NAURA의 1H26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했다. NAURA 장비가 SMIC·YMTC·CXMT 등 중국 펌에 공급되면 신규 장비용 MCA 히터 수요가 메카로에 발생하는 구조다.

동사는 메카로차이나의 손자회사인 CCT를 통해 NAURA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부품을 요구하는 NAURA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공급망으로, 최근에는 신규 장비사인 SiCarrier까지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CCT는 아직 양산 준비 초기 단계이며, 생산능력도 본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메카로 본사의 중국향 수출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CCT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본사의 직접수출 일부가 현지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메카로는 2040년까지 로열티를 수취하고 지분법이익도 인식할 수 있어 수익구조가 다변화될 전망이다.

일본 시장으로의 중장기 확장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추가 성장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는 일본 장비업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메모리 업체의 생산능력 확대도 신규 수요 기반이 될 수 있다. 키옥시아는 2026년 7월 기타카미 Fab2에서 10세대 3D NAND 생산을 시작했으며, 8월에는 2029회계연도 가동을 목표로 Fab3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키옥시아와 샌디스크는 2032년까지 일본에 310억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매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중장기 선택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 SMIC 설비투자액 추이



자료: SMI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日 키옥시아, 美 샌디스크와 2032년까지 5조엔 투자

Kioxia and Sandisk to Invest Over \$31 Billion in Japan, Extending Leadership in Memory Industry

Continued investments through 2032 will further strengthen the companies' long-standing joint venture and drive meaningful, multi-year flash memory supply. Investments align with economic policy goals of Japanese government and reflect strong U.S. - Japan relations.

August 27, 2026
Kioxia Corporation
Sandisk Corporation

TOKYO and MILPITAS, Calif., August 27, 2026 — Kioxia Corporation, a subsidiary of Kioxia Holdings Corporation (TOKYO: 285A) and Sandisk Corporation (NASDAQ: SNDK) today announced anticipated significant investments in Japan, totaling over \$31 billion (approximately 5 trillion yen) contingent upon government support. The investments through 2032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Kioxia and Sandisk partnership, one of the most successful joint ventures across any industry. The partnership has helped drive decades of NAND flash memory innovation and invested over \$50 billion (approximately 9 trillion yen) in Japan over the past 25 years. Kioxia and Sandisk will continue to deliver leading technology to support the growing demands of an AI and a data-driven world.

자료: 키옥시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초도 PO 확보, 세라믹 히터 공급 가시화

고부가 세라믹으로 제품군 확장

메카로는 2026년 7월 국내 메모리 고객사와 진행한 AIN 세라믹 히터 공동개발과 품질 인증을 완료했다. 해당 제품은 고객사가 사용 중인 해외 장비업체 장비의 제품을 국산화한 히터다. 메카로는 2022년경 자체 개발에 착수한 뒤 2024년 4월부터 고객사와 공동개발을 진행했으며, 당초 5년으로 예상했던 인증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했다.

세라믹 히터는 파우더 제조와 성형·소결 과정에서 열선과 세라믹을 일체화해야 해 메탈 히터보다 제조 난도가 높다. 크랙이 발생하면 부분 수리가 어려워 신품 교체가 일반적이다. 글로벌 시장은 NGK Insulators(일본)가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650℃급 제품은 개당 약 1.6억원, 종합수율은 70% 미만이다. 메카로 제품은 온도 사양에 따라 최저 3,000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바이스 고집적화로 챔버 온도가 상승하면서 고온 안정성과 청정도가 우수한 세라믹 히터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장비업체와 플랫폼별로 선호 소재가 다르고 부품 변경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해 메탈 히터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세라믹 진출은 기존 제품의 대체보다 메카로가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온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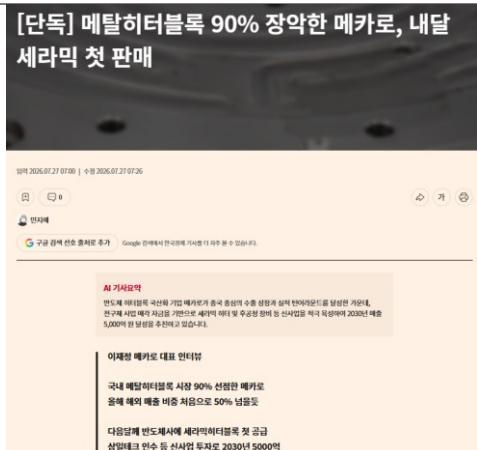
고객사의 수요 증가와 기존 공급업체의 생산능력 제약을 배경으로 메카로가 추가 벤더로 진입했으며, 세라믹 히터의 초도 발주(PO)가 발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고객사 양산라인에서 수율과 수명이 검증되면 2027년부터 적용 장비와 공급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이력은 다른 메모리 고객사와 국내외 장비사로 제품을 확대하는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다만 아직 양산수율과 원가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초도 납품과 양산 평가, 반복 발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메카로 세라믹 히터 제품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8월 세라믹 히터블록 첫 공급 보도



자료: 한국경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일테크 인수로 후공정 장비사업 진출

부품에서 후공정 장비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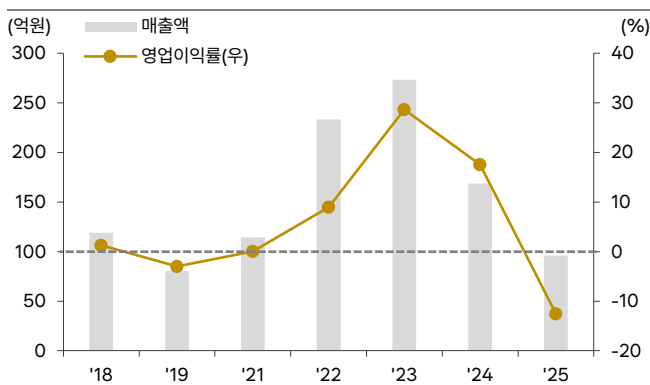
메카로는 2026년 7월 반도체 장비업체 삼일테크 지분 100%를 356억원에 인수했으며, 실적은 8월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삼일테크는 후공정용 트림·포밍, 레이저 마킹, 검사·포장 장비와 공정 자동화 설비를 생산한다. 이번 인수는 전공정용 히터블록에서 후공정 및 자동화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기업과의 시너지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메카로는 2023년부터 가변주파수마이크로웨이브(VFM) 기술 기반의 열처리 장비 개발업체 람다마이크로에 투자해 왔으며, 삼일테크의 장비 제작 및 자동화 역량이 람다마이크로의 기술 사업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삼일테크의 2025년 매출액은 96억원, 영업손실은 12억원으로 단기적인 이익 기여는 제한적이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매출액 273억원, 169억원과 영업이익 78억원, 30억원을 기록해 주주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말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133억원과 차입금 1억원을 고려한 실질 순현금은 약 133억원이다. 이를 차감한 인수 기업가치는 약 223억원으로 계산된다. 회사는 신규 에너지 사업과의 협업을 제외하더라도 삼일테크 자체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일테크 인수는 메카로가 2023년부터 투자해 온 람다마이크로의 기술을 구현할 제조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메카로는 상반기까지 누적 121억원을 투자했고, 총 141억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람다마이크로는 VFM 기술을 이용한 열처리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장비를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고객사에 맞춰 자동화할 생산 기반이 필요하다. 삼일테크는 이러한 기술을 양산장비로 사업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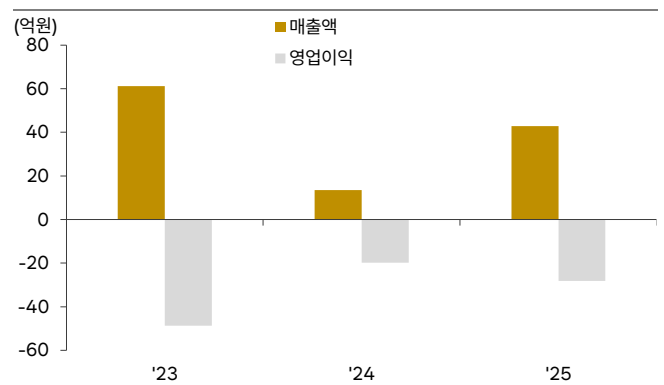
향후 람다마이크로가 VFM 핵심기술과 장비 설계를 담당하고, 삼일테크가 정밀장비 제작과 공정 자동화를 수행하는 협업 구조가 구축될 전망이다. 람다마이크로가 검토 중인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이 수주로 이어질 경우 삼일테크가 관련 장비 제작 물량을 일부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메카로는 히터블록 중심의 소모성 부품사업에서 후공정·열처리·에너지 장비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다.

삼일테크 실적 추이



자료: 삼일테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람다마이크로 실적 추이



자료: 한국경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H26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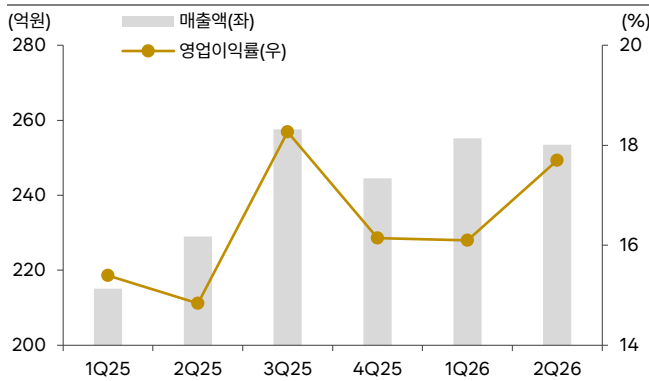
국내 성장이 이끈 수익성 개선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509억원(YoY +14.6%, 이하 YoY), 영업이익은 86억원(+28.1%)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6.9%로 전년 동기 대비 1.8%p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6억원(+33.4%)으로 증가했다. 판관비 증가가 제한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3억원(+10.7%), 45억원(+32.0%)을 기록했다.

상반기 히터블록 매출액은 4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7.7%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288억원으로 히터블록 매출의 57.9%를 기록했다. 생산 가동률은 8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에는 중국 매출액이 122억원(-8.5%)으로 감소하며 매출 비중이 48.3%로 낮아진 반면, 국내 매출액은 110억원(+38.3%)으로 증가했다. 국내 메모리 고객사와 장비사향 공급 확대가 중국 매출 감소를 상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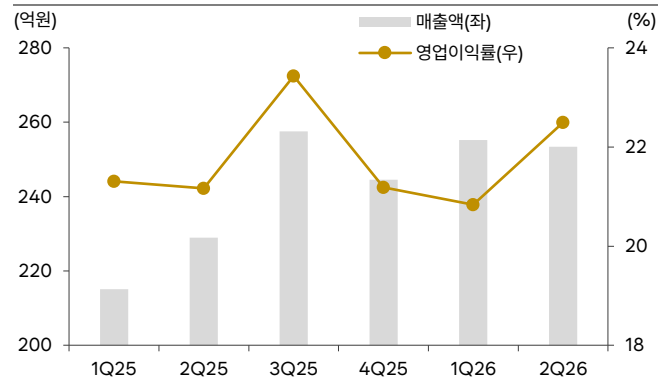
고사양 제품 비중 확대와 고정비 흡수 효과로 히터블록 본업의 수익성은 견조했다. 반면 메카로에너지는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장 운영비와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개발비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했다. 탠덤셀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흑자전환 시점은 신규 수주와 양산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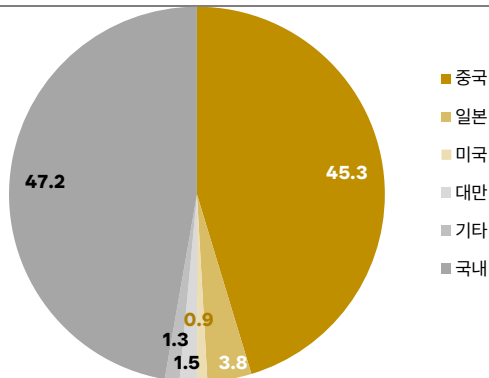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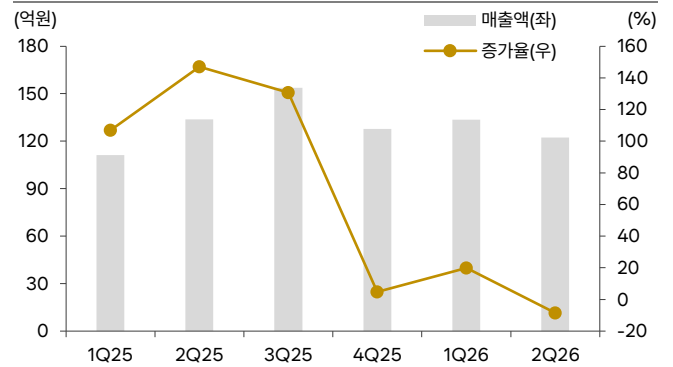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매출액 비중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지역 매출액 추이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실적전망

본업 성장과 M&A로 외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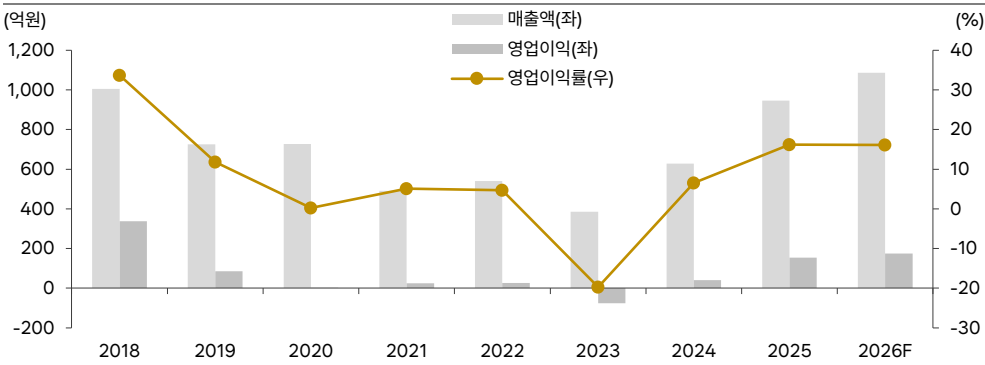
2026년 매출액은 1,086억원(YoY +14.8%), 영업이익은 162억원(YoY +5.7%)으로 추정한다. 국내 메모리 고객사향 공급 확대와 중국 MCA 히터 매출 증가가 본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8월부터 연결 편입된 삼일테크가 외형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장비사업 편입에 따른 제품 믹스 변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3%p 하락한 14.9%로 예상된다.

삼일테크의 장비사업은 히터블록보다 원가율이 높아 연결 매출원가율은 2025년 49.5%에서 2026년 51.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또 메카로에너지의 연구개발비와 운영비 부담이 이어지겠으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흡수로 판관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34.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BITDA는 268억원(YoY +5.4%), EBITDA 마진은 24.7%로 추정한다.

영업외손익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관계기업 관련 이익이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전이익은 157억원(YoY +5.8%), 지배주주순이익은 120억원(YoY -4.5%)으로 추정한다.

하반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중국 MCA 히터 수요 회복 여부다. 고객사 인증을 완료한 세라믹 히터는 초도 PO가 확인돼 공급 개시가 예상되지만, 2026년 실적 기여는 제한적일 수 있다. 양산라인에서 수율과 수명이 검증되고 적용 장비가 확대되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메카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사업영역별 피어 적용이 필요한 구조

사업영역별 피어 분류 필요

메카로는 사업영역이 메탈 히터에서 세라믹 히터와 후공정 장비로 확대되고 있어 단일 비교기업을 적용하기 어렵다. 현재 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메탈 히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장착되고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티씨케이·코미코·하나머티리얼즈·원익QnC와 비교할 수 있다.

세라믹 히터 기준으로는 AIN 히터를 생산하는 NGK Insulators가 가장 직접적인 상장 피어다. 다만 전력·환경·에너지 사업을 보유한 복합기업으로 세라믹 히터사업의 참고 지표로만 활용이 적절하다. 국내에서 직접 경쟁하는 미코세라믹스는 비상장사다. 향후 자회사의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면 코세스·테크윙 등 후공정 장비업체도 피어로 활용 가능하다.

2 2026F P/E 31.9배, 성장 기대 선반영

세라믹 장비 성장 기대 선반영

메카로의 2025년 P/E는 18.6배로 국내 전공정 부품 피어 평균 22.4배보다 낮았으나 비교기업의 밸류에이션 범위 내에 위치했다. 반면 2026년 예상 P/E는 31.9배로, 피어 평균 17.6배보다 81% 높다. 2026년 세라믹 히터의 고객사 인증 완료와 초도 PO가 확인되며 향후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MCA 히터 성장과 세라믹 히터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의 이익을 현재 주가가 일부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P/B는 1.8배로 피어 평균 2.9배보다 낮지만, 예상 ROE도 5.8%로 피어 평균 16.9%를 크게 밑돈다. 세라믹 히터 피어인 NGK와 비교해도 P/B는 1.8배로 유사한 반면, P/E는 메카로가 31.9배로 NGK의 16.5배를 크게 웃돈다. 따라서 P/B 할인만으로 저평가를 판단하기보다 향후 신규 사업의 이익 기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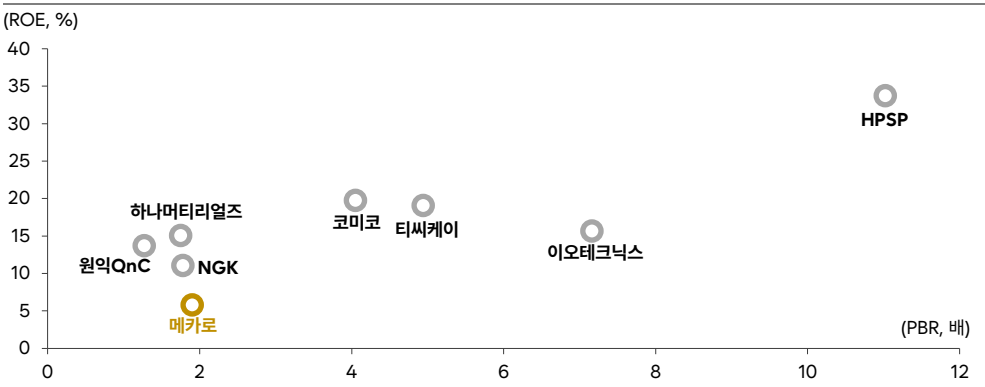
삼일테크의 수주가 회복되고 람다마이크로의 VFM 열처리 장비가 양산에 적용되면 기존 전공정 부품사업 가치에 후공정 장비사업의 옵션 가치도 추가될 수 있다. 장비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부문별 가치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 부여가 가능하지만, 세라믹 히터 공급 확대와 신규 장비 수주가 지연되면 현재의 P/E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Global Peer Valuation

지수 및 기업명	종가 (원, 엔)	시가총액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P/E(배)		P/B(배)		ROE(%)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메카로	37,650	384	95	109	15	16	18.6	31.9	1.1	1.9	6.4	5.8
티씨케이	268,500	3,002	301	408	84	123	23.7	28.0	3.1	4.9	13.5	19.1
코미코	26,350	1,353	604	710	111	120	18.6	22.9	3.4	4.1	18.5	19.7
하나머티리얼즈	52,400	1,036	273	377	50	99	22.2	13.2	1.8	1.8	9.4	15.1
원익 QnC	27,100	712	944	1,097	60	117	25.1	9.9	1.2	1.3	4.7	13.7
코세스	23,750	394	82	N/A	17	N/A	27.3	N/A	4.7	N/A	19.6	N/A
테크윙	48,100	1,782	159	372	16	99	181.7	N/A	7.6	N/A	4.6	N/A
이오테크닉스	456,000	5,618	381	491	81	133	58.6	48.8	4.9	7.2	8.9	15.6
HPSP	53,300	4,387	173	248	90	138	38.5	37.2	8.8	11.0	24.8	33.7
Ngk(일본)	5,316	13,250	6,342	6,336	619	1,013	19.3	16.8	1.4	1.8	7.8	11.1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ROE 및 PBR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중국 현지화에 따른 기술 우위 약화 가능성

중국 기술 추격 우려

중국 업체의 MCA 히터 기술 추격은 메카로의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중국에서는 알루미늄 소재의 범용 히터블록이 이미 현지 생산되고 있지만, 고사양 MCA 히터는 현지 생산능력이 부족해 수입 의존도가 높다. MCA 히터는 SUS 정밀가공뿐 아니라 웨이퍼 전면의 온도 균일도와 파티클 억제 능력이 중요하다. 파티클이 발생하면 박막 결함과 수율 저하, 챔버 세정 주기 단축으로 이어져 고객사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원가가 상승한다. 중국 업체는 청정도와 장기간의 공정 안정성에서 기술 격차가 있어 단기적인 대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MCA 히터는 세라믹 히터보다 기계가공 기술의 비중이 높은 만큼, 회사도 중국 업체의 기술 확보는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 현지 업체가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고객사 인증에 성공하면 메카로의 중국향 수출 감소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개발 수준과 현지 고객사의 공급망 내재화 움직임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자회사 손실과 신규 M&A 통합 부담

자회사 적자

메카로에너지의 적자 지속과 삼일테크 인수 이후의 통합 과정은 메카로의 연결 수익성과 현금흐름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메카로에너지는 CIGS-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6년 상반기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양산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과 외부 협력사 확보가 지연되면 모 회사의 자금 지원과 연결 손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삼일테크는 2026년 8월부터 연결실적에 반영되지만 최근 3년 내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력이 있으며, 2025년에도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했다. 수주형 장비사업은 기존 부품사업과 매출 인식 및 원가 관리 방식이 달라 인수 이후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수주 회복이 지연되거나 람다마이크로와의 협업이 실제 장비 발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연결 수익성이 낮아지고 인수자금 회수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메카로에너지의 사업화 진척과 삼일테크의 신규 수주 및 흑자 전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40	386	629	946	1,086
증가율(%)	10.1	-28.5	62.9	50.5	14.8
매출원가	324	239	337	468	554
매출원가율(%)	60.0	61.9	53.6	49.5	51.0
매출총이익	216	147	291	478	533
매출이익률(%)	40.0	38.0	46.3	50.5	49.0
판매관리비	191	223	250	324	370
판매비율(%)	35.4	57.8	39.7	34.2	34.1
EBITDA	126	0	135	254	268
EBITDA 이익률(%)	23.3	0.1	21.5	26.9	24.7
증가율(%)	0.0	-99.8	45,793.5	87.9	5.4
영업이익	26	-76	41	154	162
영업이익률(%)	4.7	-19.8	6.6	16.2	14.9
증가율(%)	2.2	적전	흑전	273.0	5.7
영업외손익	5	45	28	-22	-27
금융수익	5	43	32	17	13
금융비용	0	1	20	33	33
기타영업외손익	0	3	16	-6	-6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22	22	22
세전계속사업이익	31	-31	91	153	157
증가율(%)	799.4	적전	흑전	87.4	2.8
법인세비용	139	-11	28	30	40
계속사업이익	17	-21	61	124	118
중단사업이익	546	-3	-8	3	3
당기순이익	437	-24	55	126	120
당기순이익률(%)	80.9	-6.1	8.8	13.3	11.1
증가율(%)	465.7	적전	흑전	128.7	-4.5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37	-24	55	126	120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9	-95	97	159	219
당기순이익	437	-24	55	126	120
유형자산 상각비	96	73	92	99	104
무형자산 상각비	5	3	3	2	2
외환손익	4	1	0	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79	-15	-103	-120	-18
기타	-414	-133	50	50	1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08	-916	186	13	-48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038	2	11	-22	-189
유형자산의 감소	2	0	1	7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16	-347	-218	-106	-100
기타	-16	-571	392	134	-2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8	-57	-10	-16	-37
차입금의 증가(감소)	4	-6	-1	-1	-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6	-45	0	-15	-35
기타	-6	-6	-9	0	0
기타현금흐름	-1	-0	1	-0	1
현금의증가(감소)	838	-1,067	273	156	-305
기초현금	341	1,179	112	386	542
기말현금	1,179	112	386	542	236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529	939	881	980	739
현금성자산	1,179	112	386	542	235
단기투자자산	179	642	211	50	57
매출채권	69	73	150	247	284
재고자산	91	74	115	136	156
기타유동자산	10	38	20	6	6
비유동자산	653	1,023	1,195	1,276	1,481
유형자산	611	892	1,021	1,031	1,028
무형자산	13	26	29	35	32
투자자산	18	66	101	128	339
기타비유동자산	11	39	44	82	82
자산총계	2,182	1,962	2,076	2,257	2,380
유동부채	238	71	120	160	185
단기차입금	5	0	0	0	0
매입채무	11	14	25	23	27
기타유동부채	222	57	95	137	158
비유동부채	22	30	31	42	4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1	1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1	29	31	42	45
부채총계	260	101	151	202	230
지배주주지분	1,917	1,854	1,917	2,047	2,142
자본금	51	51	51	51	51
자본잉여금	718	719	722	734	734
자본조정 등	-22	-12	-9	-3	-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3	5	5
이익잉여금	1,170	1,096	1,150	1,260	1,356
자본총계	1,922	1,862	1,925	2,055	2,150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2.5	N/A	15.4	18.6	31.9
P/B(배)	0.6	0.5	0.4	1.1	1.8
P/S(배)	2.0	2.4	1.4	2.5	3.5
EV/EBITDA(배)	N/A	629.7	2.0	7.0	13.3
배당수익률(%)	4.2	0.0	1.8	1.5	0.7
EPS(원)	4,287	-231	541	1,238	1,182
BPS(원)	18,811	18,193	18,806	20,082	21,019
SPS(원)	5,297	3,786	6,167	9,283	10,658
DPS(원)	455	0	150	350	250
수익성(%)					
ROE	25.7	-1.2	2.9	6.4	5.8
ROA	22.9	-1.1	2.7	5.8	5.2
ROIC	5.4	-9.1	2.4	7.5	9.4
안정성(%)					
유동비율	641.3	1,323.6	731.8	614.0	400.4
부채비율	13.5	5.4	7.8	9.8	10.7
순차입금비율	-69.9	-39.5	-30.3	-28.4	-13.3
이자보상배율	96.9	-94.3	63.1	296.6	414.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2	0.3	0.4	0.5
매출채권회전율	6.8	5.4	5.6	4.8	4.1
재고자산회전율	4.3	4.7	6.6	7.6	7.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메카로	O	O	X

2026년 6월 16일 투자경고종목, 6월 30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9.08	메카로-Control the Heat, Lead the Chip
2024.04.08	메카로-중국 반도체향 수출 확대와 특수밸브 국산화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